

#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 I. 머리말

2016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의 최대 변수는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할 수 있었다. 제재의 주요 내용들이 북한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UN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의 전방위적 수출 통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을 수입금지품목<sup>1)</sup>으로 지정했으며, 항공연료(가솔린, 나프타), 로켓연료(등유) 등은 수출금지품목<sup>2)</sup>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으며, 불법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시키는 등 압박이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모습이였다.

작년 북중 무역액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리 수 감소 폭을 보이는 등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악재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썬이다. 또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는 대외경제 개선과는 별로 상관 없는 “김정은 영도자 지위 공고화, 당 중심 국가통치체계 재구축, 김정은 지지세력의 재편, 핵·경제 병진노선의 추진 입장 재확인,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외관계 기조 공표” 등의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더욱 없게 만들었다.<sup>3)</sup>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2016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의 추이를 제재와 연관시켜 분석해 보고, 2016년 하반기 주요 변수들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금, 티타늄, 희토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 항공연료는 인도주의 목적에서 UN 안보리가 승인할 경우 북한 민항기가 해외에서 연료를 급유 받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3) 김종호,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II.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 동향

2015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은 총 62.5억달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KOTRA 기준).<sup>4)</sup> 수출이 약 15%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무역의 90%를 상회하는 북중무역의 감소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면 작년 북중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15년의 경우 KOTRA와 중국해관통계의 기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원유 수입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러하다. 중국해관통계는 2014년도부터 원유 수입에 대한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KOTRA는 북한의 예년 원유 수입량과 최근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OTRA는 2015년 북중무역액을 57.1억달러(수출 24.8억달러, 수입 32.3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6.8%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중국해관통계는 54.3억달러(수출 24.8억달러, 수입 29.5억달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14.7% 줄어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제재의 시작과 함께 외부 관찰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0.6%). 대중 수출은 4.7% 줄어들었던 반면, 대중 수입은 오히려 늘어 5.3% 증가했다. 즉, 상반기 동안의 누적액으로 보면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5년 전체	2,484 (-12.6)	2,947 (-16.4)	5,430 (-14.7)	463
2015년 1~6월	1,172 (-10.6)	1,333 (-15.8)	2,505 (-13.4)	161
2016년 1~6월	1,116 (-4.7)	1,404 (5.3)	2,520 (0.6)	288

주: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16.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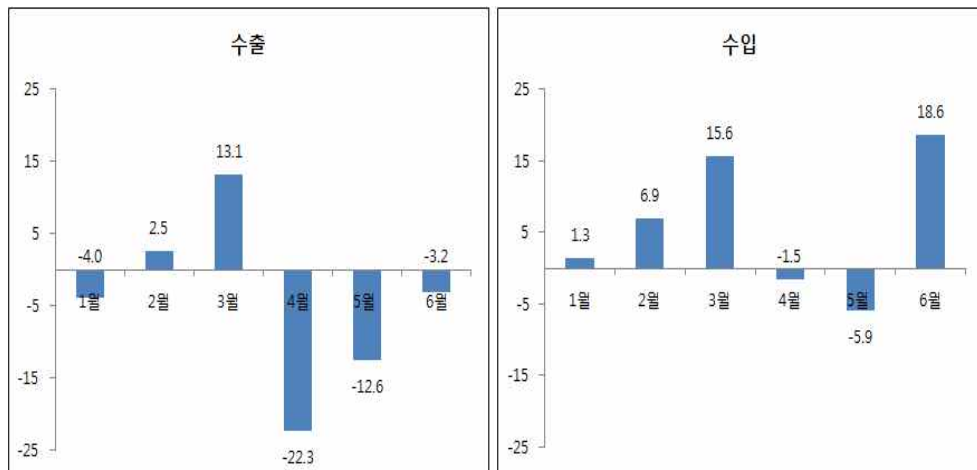
5)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북한과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나, 중국에 비하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KOTRA가 파악하는 무역액의 감소 폭이 중국해관통계보다 더 큰 이유는 원유 가격이 작년보다 더욱 하락하여 북한의 원유 수입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무역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해관통계는 원유 수입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감소 폭이 더 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월별 단위의 변화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재의 이행 시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이 중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이전과 이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이후에 한국 개성공단 폐쇄(2월 10일), 일본 대북 독자제재(2월 10일), 미국 대북제재법안(H.R.757) 통과(2월 12일), UN 안보리결의 2270호(3월 2일) 채택 등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의 북중무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앞당겨서 진행하는 바람에 3월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sup>7)</sup>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변화가 시작된다(4월 5일).<sup>8)</sup> 그 결과 북중무역 추세에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4월과 5월에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다시 6월부터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작년 2분기와 비교해본다면 3.7%나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6월부터 그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림 1] 2016년 상반기 월별 북중 무역액 변화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7) 이때 2016년 북중무역액 누적액(1~3월)은 11.8억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한다.

8) 물론 중국정부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해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해 수출입 업무에 부담을 줄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수출입 품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2016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7% 감소했다. 작년 감소 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저 효과(基底效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특히 석탄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의 감소 폭이 현저하게 크다. 작년에는 0.5% 감소하는데 불과했으나, 올해는 14.6%나 감소했다.<sup>9)</sup> 이는 북한 외화의 주요 원천인 석탄 수출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sup>10)</sup> 결국 석탄은 올해 상반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을 감소세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작년에 유독 부진했던 수산물과 철광석 수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는데, 수산물(HS03)은 12.7% 증가했으며, 철광석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재의 예외 대상인 민생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류제품(HS61, HS62)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는 특이할 정도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품목도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아연광(2,202만달러, 273%), 아연괴(1,880만달러, 13,248%) 등이다.<sup>12)</sup> 또한 변압기(1,166만달러, 9.9%), 목재(948만달러, 4.3%)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5년(1~6월)		2016년(1~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01	석탄	570	-0.5	487	-14.6
2	6203	남성 재킷	69	-17.4	97	41.2
3	6204	여성 재킷	42	-16.5	53	26.6
4	6202	여성 코트	39	-29.4	46	19.0
5	6109	티셔츠	46	98.3	37	-18.6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총계			954	-10.6	1,116	-4.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9) 산동성, 허북성, 요녕성 등으로의 석탄 수출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강소성과 복건성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10) 물론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국내에서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산업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경화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북한경제(특히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11) 의류 수출 증가율: 2013년(33.5%), 2014년(26.2%), 2015년(7.9%)

12) 아연광의 경우 주로 요녕성으로 수출되었고, 아연괴는 거의 전량 강소성으로 수출되었다.

〈표 3〉 무연탄 수출단가 및 국제시세(월평균)

(단위: 달러/톤)

		무연탄	
		북한 수출단가	국제시세
2014년	상반기	76.91	80.22
	하반기	70.28	70.06
2015년	상반기	60.29	64.41
	하반기	47.37	58.83
2016년	상반기	46.38	5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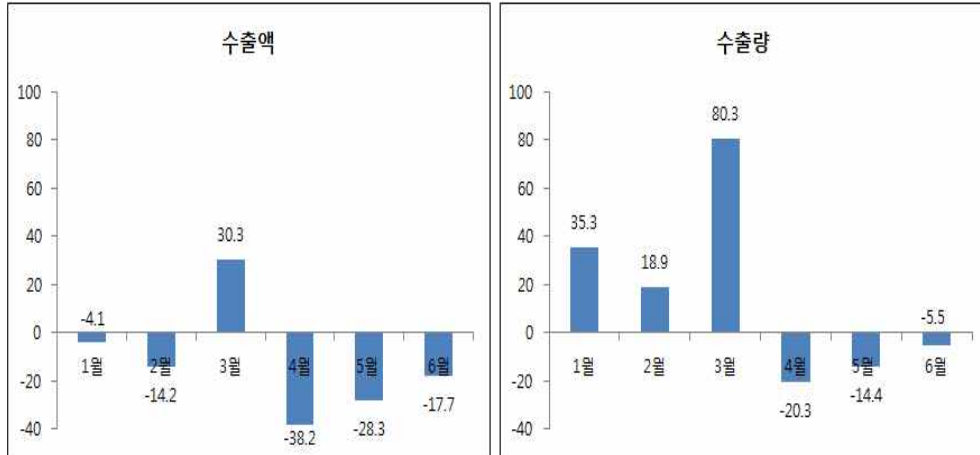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6. 7. 23).

2016년 상반기 석탄 수출은 북한의 전체 수출 부진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2014년과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약간의 내용상 차이가 있다면 2014년에는 석탄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하락,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작년에는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물량을 상당히 증가시켜 봤지만 가격 하락의 폭이 워낙 커서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던 경우이다. 2016년 상반기 동안의 석탄 수출액은 약 14.6% 감소했는데, 부진의 패턴은 작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하락했으며(2015년 60달러, 2016년 46달러), 물량은 오히려 10%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석탄의 경우 이번 UN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런 만큼 제재의 영향이 상반기에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상반기 석탄 수출의 월별 변화도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 발표(4월 5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1월과 2월 연속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3월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3)</sup> 하지만 중국의 발표 이후 4~6월에는 모두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량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15년부터 단가 하락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처음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또다시 5월과 6월에 연속으로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sup>13)</sup> 이때까지 누적 수출액(1~3월)이 2.5억달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4.3% 증가하는 등 석탄 수출이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했다. 이는 물량 증대 효과가 가격하락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2015년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2016년 상반기 월별 석탄 수출액 및 수출량 변화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한편,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은 늘었다(5.3%). 앞서 [그림 1]에서와 같이 1~3월 월별 수입 변화는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4~5월 월별 수입 변화는 부(-)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다시 6월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면(裏面)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대중 수입 변화에 관한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조금 더 모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현재까지의 대중 수입 패턴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원유 수입에 관한 통계가 여전히 누락되어 있는 가운데 2014년과 2015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석유제품의 수입도 줄었다(-0.4%). 특히 3월에는 석유제품 수입이 급감했는데(-32%), 이때 일부 장마당에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다.<sup>15)</sup> 둘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수입이 늘었다. 이 같은 품목의 수입 증대는 의류 수출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이들 제품이 민생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필라멘트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질소비료 수입이 크게 증가(183%)했는데, 이는 김정은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자강력 체일주의 강조, 본격적인 국제제재에 대한 대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매우 특이하게 사과, 배 등 과일 수입이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14) 제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무역 추이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컨센서스를 이룬다. 즉, 올해 연말 정도는 되어야 제재의 효과를 논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준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같은 원칙은 수입 뿐 아니라 수출도 마찬가지이다.

15) '연합뉴스', 「AP 통신, 북한 휘발유 값 3월에 14% 급등... 대북제재 등 영향」, 2016. 4. 14.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5년(1~6월)		2016년(1~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66	-17.8	75	13.8
2	0808	사과, 배	13	14.5	68	418.3
3	8704	화물자동차	56	27.6	56	1.1
4	2710	석유제품	47	-36.8	47	-0.4
5	1506	대두유	43	-12.1	42	-0.3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 총계			1,333	-15.8	1,404	5.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 Ⅲ. 2016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

지난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이 전부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 중단됨으로써 남북경협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역대 최대<sup>16)</sup> 남북교역액을 달성했던 2015년의 월평균 수준보다 2016년 1월의 교역액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북교역액은 올해 다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표 5〉 개성공단 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연 월	개성공단 반입	개성공단 반출	합 계
2013년 월평균	51,221	43,127	94,348
2014년 월평균	99,361	93,674	193,034
2015년 월평균	121,050	105,192	226,242
2016년 월평균(1~2월)	92,940	72,877	165,817
2016년 1월	147,344	119,192	266,536
2월	38,536	26,561	65,097
2016년 소계	185,880	145,753	331,63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6년, 각년도.

16) 또한 2015년 생산액은 5.6억달러로 연간 생산액이 최초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통일부[2016]).

## IV. 평가 및 전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중무역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제재 효과의 유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중무역을 분석했다. 북중무역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 늘어나기는 했으나(0.6%), 지난 4월 5일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 결의 발표 이전(1분기)과 이후(2분기)의 추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즉, 1분기에는 북중무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으나,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인 2분기에는 3.7% 감소한 것이다. 또한 2분기에는 그동안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던 석탄 수출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석탄의 경우 북한이 단가 하락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을 늘림으로써 전체 총액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해오던 상황이어서 제재로 인한 외화획득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제품 수입이 줄어들자 장마당에서 휘발유, 경유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1~2분기 정도만 지속된 후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논하는 작업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제재의 지속성 측면).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민생품목은 제재의 예외대상인 만큼 이와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을 늘려 외화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외화가득률이 낮다고는 하나(김석진[2015]), 재정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물품에 대한 수출을 의도적으로 늘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非상품 거래를 통한 외화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가 상품 거래에 대한 내용에 비해 불확실하고, 국가들 간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릴 수도 있다(이석[2016]). 또한 비공식부문에서 지대를 추구(rent-seeking)하는 것도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 이러한 채널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공식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공식화·제도화하려 할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최근 동북아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고 북중무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하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 변화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변수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탄 수출물량의 변화이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단가 하락에 대응하여 물량을 증가시키면서 수출액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왔으나, 석탄이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이러한 대응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더구나 석탄은 민생용품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석탄 수출량이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둘째, 외화벌이 채널의 변화 여부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 감소에 따른 북중무역 부진(무역 측면), 경제개발구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실적 저조(투자 측면) 등을 경험하면서 외화 확보 채널 변화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비록 제7차 당대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당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문, 즉 위험도가 낮은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품목은 제재의 예외대상인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예상되는 바, 의류 수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석탄·철광석이 아닌 아연, 구리 등의 다른 지하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정도이다. 그동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체가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역경제 자체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다른 지역들로의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요녕성, 강소성, 복건성 등으로의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석탄 수출 감소가 전체 북중무역의 감소를 이끄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제재 이행 발표가 있었던 4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향후 이는 북한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과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경화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비상상품거래에서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대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석진, 「북한 외화별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 김중호,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45~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16. 6. 15.
- 『연합뉴스』, 「AP 통신 “북한 휘발유값 3월에 14% 급등...대북제재 등 영향」, 2016. 4. 14.
- 이석,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KINU 통일나침반 16-01』, 통일연구원, 2016.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6년, 각년도.
- 통일부, 『2016 통일백서』, 2016.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6. 7. 23).

### <관련자료 목록>

- 이종규,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3~12.
- 이종규,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8월호, pp.22~32.